

김해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강한균*

< 요약 >

김해시에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의 최적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남해바다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도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 50분 거리의 후쿠오카와, 70분 거리에 있는 동경에 이들 농산물의 신속한 수출도 용이하다. 한편 김해시는 가락국의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관의 개관, 문화유적의 복원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도 갖추어 가고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입지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기계·자동차·금속산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정밀의료기기 및 첨단 자동차부품포함)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 및 농산물수출은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의 조성,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기계산업을 정보기술산업과 접목시키는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청구조의 산업구조를 지양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적, 화훼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과 제주도를 잇는 관광도시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제대학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헬써어밸리(healthier valley)조성을 통해 생물·건강소재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특화산업들이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고 조화있는 발전을 할 때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김해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I. 서 론

국제경제의 글로벌화와 인터넷의 상거래 혁명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었다. 한편 한 기업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 또는 인수·합병(M&A)의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입지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도시들은 국내·외 기업들을 막론하고 경쟁적인 유치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인제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그러나 도시경제 또한 모든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특정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의 산업입지조건을 분석하여 김해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기업들의 실태, 기존의 연구발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김해지역산업의 현황

1. 산업별 현황

김해시의 연도별 현재 총산업체 수와 주요산업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산업대분류별 기준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총사업체수는 16,573개이며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1998년 기준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이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점업이 21.3%, 제조업이 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이 15.7%, 숙박·음식점업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주요산업별 비중

(단위 : %)

연도	기준	총계	제조	건설	도소매 소비자 용품수리	숙박 음식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교육	보건	기타	계
'96	총사 업체	15,100개	18.2	2.6	31.9	20.0	5.0	1.1	4.3	4.2	1.6	11.1	100
	총종 업원	82,856명	49.0	2.9	14.4	8.3	3.4	2.9	2.5	5.7	1.9	9.0	100
'97	총사 업체	15,854개	17.2	2.4	31.5	20.5	5.1	1.1	4.4	4.3	2.0	11.5	100
	총종 업원	78,730명	45.2	3.3	15.8	8.9	3.8	3.2	3.3	6.1	2.4	8.0	100
'98	총사 업체	16,573개	15.6	2.6	31.0	21.3	6.0	1.2	4.5	4.0	2.1	11.7	100
	총종 업원	76,111명	42.1	3.5	15.7	9.7	4.0	3.8	3.1	6.5	2.7	8.9	100

자료: 김해시 「통계연보 1997, 1998, 1999」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제조업의 경우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부도·도산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종업원 수 기준)이 1996년에는 49%였던 것이 1997년 45.2%, 1998년 42.1%로 계속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 및 생산효과면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김해지역산업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중소기업체의 현황

김해시의 연도별 중소기업체수 및 종업원수는 <표 2>과 같으며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표 3>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수는 1985년의 199개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3,503개로 전국2위의 최다 중소기업이다.

<표 2> 연도별 중소기업체수와 종업원수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기업체수(개)	199	512	1,137	1,409	2,311	2,756	2,975	3,503
종업원수(명)	17,000	29,000	33,000	36,000	47,000	54,000	58,000	65,000

자료: http://city.kimhae.kyongnam.kr/sub05/indus3_2.html

<표 3> 기준별 업종 구성비율(1999년 말 기준)

(단위 : %)

	음식료품	섬유, 의복 목재, 제지	화학 고무	신발	기 계 자동차 금 속	전기 전자	비금속 광 물	계
기업체수	3.5	18.8	16.2	2.1	45.8	4.6	9.0	100
종업원수	5.2	12.3	14.8	5.9	50.8	6.1	4.9	100

자료: http://city.kimhae.kyongnam.kr/sub05/indus3_2.html

한편 종업원수도 1985년의 17,000명에서 1999년에는 3.8배 이상 증가한 65,000명으로 김해지역 고용효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해시는 1999년 한해동안 510건의 공장

및 창업신고를 접수하여 경남도내 전체 건수의 56%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체의 업종별 비중은 1999년 말 기준 기계·자동차·금속이 기업체수에 있어서는 45.8%,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50.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Ⅲ. 김해지역의 산업입지조건

1. 자연적 입지조건

김해시는 한국에서 가장 긴 낙동강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32만명, 총면적 463km²로써 남한 총면적의 약 0.5%, 경상남도 총면적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상으로는 김해국제공항이 10km 이내에 있으며 부산항과 마산항, 가덕신항만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서울, 대구, 광주로 가는 3개의 고속도로(6개 IC)와 울산, 양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동남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육상, 해상, 공중교통의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공장입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후적인 조건 또한 남해바다의 해양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연평균 기온 섭씨 14도 내외, 강수량 1,026mm 정도로 전국을 통하여 가장 온화한 편이며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재배에 최적이며 공항을 통해서는 후쿠오카 50분, 동경이 70분 거리에 있어 농산물수출지로서도 적합하다.

그리고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문화유적의 정비·복원 등으로 역사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김해시는 국내외 어떤 지역과도 연결이 편리한 운송망과 지리적 여건으로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 대규모 대도시 개발사업이 요구되는 투자가치가 보장된 성장도시로서 투자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2. 풍부한 공업용지 제공

김해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년연속 전국4위의 재정규모, 3년 연속 경남도내 1위의 재정규모, 총예산중 투자비 비율이 전국 1위(1997 기준)를 차지하였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25%, 2차산업 40%, 3차산업 35%이며 3,000개가 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공업단지로는 산업단지(덕암), 농공단지(병동, 내삼, 죽곡, 봉림, 나전), 공업지역(안동, 어방, 지내), 준공업지역(본산, 지내) 등이 현재 기본양 또는 분양중¹⁾

1) 현재 병동농공단지는 m²당 151,200원, 덕암산업단지는 m²당 151,250원에 분양중이다.

에 있어 풍부한 공업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3. 김해시의 창업지원

김해시는 지역경제국 산하에 기업육성과를 (1998.9)를 설치하고 종합민원실 산하에 창업민원과를 두고 다음과 같은 창업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²⁾

- 1) 공장설립 인허가 사항을 민원 1회방문으로 일괄처리하는 One-Stop Service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까지 320억원을 지원한다.
- 3)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인제대학,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시가 공동으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여(1996.11) 기계공학을 비롯한 13개 분야를 중점추진분야로 정하였다.
- 4) 인제대학교의 기술, 경영, 연구인력을 활용해 신기술개발과 경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인제대학교 부설 중소기업테크노센타를 설립하여(1997.5) 현재 산학기술연구원(1999.6)로 개칭하여 운영되고 있다.
-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을 지닌 예비창업자에게 유희 행정자산 및 공동 기자재를 제공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2년 이내의 입주기간으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 6) 기능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구인·구직 취업 알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 및 재교육을 통해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수협력사업을 통해 필요한 해외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 7) 동남아, 중남미 등에 KOTRA와 공동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개발지원, 내고장상품 사주기 운동전개 등을 하고 있다

4. 김해시의 기업육성책

김해시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업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서용위·원종하. “김해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 김해발전연구소, 「김해발전연구」, 제 2권 제1호, 1998.12. pp.104-107.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기업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활력을 촉진시킨다.

2) 해외시장 개척활동

유망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마케팅능력 배양을 통한 수출증대와 아울러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과 관련정보 제공으로 지역중소업체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4) 국제품질인증(ISO 9000)획득 지원사업

유망중소기업이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컨설팅기관과 지원대상업체의 계약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5)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수출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진출능력과 자생력을 배양하여 유망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케팅능력 배양과 해외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6)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노사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정간담회 개최, 근로자 체육대회, 노조대표 세미나 개최,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실시한다.

IV. 김해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방안

1. 지역전략산업의 선정배경

1) 기계산업

기계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이며 산업구조 고도화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전·후방연관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동시에 에너지소비가 적은 산업이다. 기계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35.9%, 제조업 생산의 31.7%를

차지하며 총수출에서도 28.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1.7%를 차지하고 있고 수익성향상이 기대되어 향후 10-20년간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수출산업에서 1996년 기준 독일 16.0%, 미국 15.1%, 일본 13.2%, 프랑스 6.6%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의 1.6%에서 1996년에는 2.1%로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³⁾

경남지역은 1970년대 초 울산, 거제지방을 중심으로한 자동차·조선산업이, 1974년 창원기계공단이 설립되면서 산업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원자력발전설비 등의 기계산업기반이 형성되었다. 또 1990년대에는 사천·진주를 중심으로한 항공산업이 유치되는 등 기계산업이 집중 육성되었다. 경남지역 제조업생산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지역 역시 하청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부문의 산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부 역시 BK21 창의적 수송기계산업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계산업이 김해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이다.

2) 농·축산물수출

김해평야를 중심으로한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추어 전통적으로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김해지역은 특히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화훼, 단감,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 수출과 돼지고기수출 등의 농·축산물수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김해지역의 기후는 중북부지방보다 겨울이 온난하며 일조량도 많아 국내 여타 지역보다 화훼류생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온실 등 시설재배의 경우 난방비가 절약되며 충분한 일조량은 개화시기 조절에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충분한 농업용수와 유기물질이 충분한 퇴적토양은 농산물 재배에 도움이 된다.

1998년 기준 김해시의 화훼생산은 617호의 농가가 274ha를 재배하여 436억원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전국대비 농가수의 4.7%, 재배면적의 12.1%, 생산액의 17.2%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경남도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김해시의 수출개척자금 등의 지원책으로 1999년 김해시의 수출실적을 보면 신선농산물 67억원, 가공농산물 170억원, 축산물 157억원으로 전년대비 162%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대상국도 종전의 일본 일변도에서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생산 및 지리적 수출입지조건을 함께 갖춘 농·축산물은 김해시 수출전략산업으

3) 산업연구원, 「식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연구」, 1999. 8, pp.4-5.

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광산업

2000여년전 고대 왕국인 가락국이 자리잡았던 김해시는 가야문화의 복원과 함께 국내관광은 물론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야문화유물이 고대일본 문화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왕릉, 박물관, 고분군, 전통도예촌 등의 역사문화권과 강변휴양지 등의 전원형 휴양권, 갈비촌 등의 도시형 문화권으로서의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생물·건강소재산업의 허브(herb)식재를 통한 허브벨트(herb belt)의 조성은 건강증진을 위한 휴양림 및 관광림으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생물·건강소재산업

건강식품, 천연의약품 등 생물산업 제품시장은 세계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산업화과정에서 지적된 성분분석, 안정성 및 임상시험에 관한 문제점만 해결한다면 외국의 규제철폐 변화에 따라 수출 전략상품으로도 매우 유리한 전망이다.

김해지역의 화훼·원예 기술적 노하우 인프라와 최첨단 의생명공학 연구개발 산업 기술을 연구하여 미래형 생물·건강소재분야의 산업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생물·건강소재 특화산업이 될 것이다.⁴⁾

특히 인제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의생명공학분야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농업·임업을 통해 연계되는 생물·건강소재를 최첨단 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적 산업화를 꾀함으로써 김해지역 미래산업의 지식기반 신산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5) 벤처기업의 육성

경남의 벤처기업⁵⁾ 분포를 보면 김해가 132개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여 창원 다음으로 많은 벤처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1997년에 수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며 자본금의 10% 이상을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받았거나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기업 그리고 정부지원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은 30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⁶⁾

4) 김용호, 「김해 생물·건강소재산업의 세부추진계획」, 김해시 전략산업기획단, 1999. 11, p.16.

5)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은 위험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신생기업. 일본은 연구개발비중이 3% 이상인 5년 미만의 기업. 대만은 기술집약형 기업. 한국은 대만과 같이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6) 이우배, “김해지역 벤처산업 육성방안,” 제15회 김해포럼, 1999.5.21, pp.3-5.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이 전체의 15.2%, 기계 및 장비 12.9%, 전기기계 및 의료기포함 정밀기기는 각각 3.0% 이며 최근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사업은 0.9%에 불과하다.

김해지역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하청에 의한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과 판매의 경쟁력이 약해 IMF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한해 동안 117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하였으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조립금속제품으로 나타났다.

최근 IMF이후 대기업의 부도, 빅딜 등으로 하청구조에 의존한 경남지역의 사업기반이 타지역보다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에 크게 종속되어 있는 김해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단순한 하청구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전문화와 연구개발능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2. 육성방안

1)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육성

20세기형 자본집약형 기계산업은 과도한 설비투자, 조립형 저부가산업, 대기업중심 하청구조, 대규모 환경오염 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지식과 정보투자, 부품생산형 고부가산업, 중소기업중심 협력구조, 환경친화산업인 21세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21세기형 유망산업으로 메카트로닉스사업, 자동차산업, 항공기산업, 전자정보산업, 정밀화학산업, 신발산업, 물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 21세기 비전계획」에 의해 <양산→김해→창원→진주>로 연결하는 기계테크노벨트 구축하고 메카트로닉스 산업, 우주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산업, 생명과학산업 등 8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중 김해지역은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정밀의료기기와 첨단자동차산업부품, 그리고 생명과학산업이 해당된다.⁷⁾

기계부품산업이 발달한 김해지역의 경우 기계와 전자기술을 접목한 정밀기기분야와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정밀기기분야는 계측기기, 광기기,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며 인제대학의 의생명공학분야 기술을 산업화한 의료기기분야의 특화도 바람직할 것이다. 자동차부품 가운데서 고부가품목인 전자정보품목(카일렉트로닉스)의 육성도 미국이 2003년 이후 전기자동차의 의무판매가 시작되게 되면 상당한 발전이 예상된다.⁸⁾

7) 산업연구원, 전계서, passim 10-52.

중앙정부와 경남도는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과 함께 경남을 특화된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추진에 합의하였는바 김해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정밀의 료기기와 첨단자동차산업부품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화훼 및 농산물의 수출

우리나라 화훼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제품개발이 시급하다. 1999년 외국육종회사의 화훼 지적소유권문제 제기로 수출의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부담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내판매용에까지 로열티가 부과되게 된다면 화훼농가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다. 김해지역 화훼산업역시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여 고품질 화훼류의 안정적생산을 기하고 생산에서 유통 및 수출단계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와 일관성있는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취지하에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⁹⁾

신제품개발이 뒷받침되지 않고 소규모영세 개별농가를 통한 생산체제에서 유가인상으로 인한 난방비는 수출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에너지의 개발, 대규모 집단난방시설의 공동이용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광산업

가야문화의 복원으로 인한 단순한 역사관광에 그치지 않고 화훼도시를 이용한 국제 규모의 화훼박람회의 개최, 화훼공원의 조성, 화훼예식장의 조성, 도예축제, 갈비촌의 갈비축제, 단감축제와 허브축제, 약주축제 등으로 연중 국내·외 관광객을 항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신혼부부들이 화훼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가지고 싶어하고, 제주도 신혼여행객들이 김해시를 반드시 들리고 싶어하는 김해시의 독특한 복합관광자원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생물·건강소재산업

생물·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물·건강소재산업의 지원산업인 허브벨트, 허브단지 등이 연계된 헬씨어 밸리(Healthier Valley)조성이 필요하다. 헬씨어 밸리¹⁰⁾에는 생물·건강산업체가 입주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 품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첨

8) 이우배, 전계논문, pp.12-13.

9) 강한균외 2인, "김해시 화훼류 대일수출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제2권제1호, 1997.6, pp.283-285.

10) 김해시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상동면 일대 시부지 47만여 m²에 헬씨어 밸리와 74만 m²에 허브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허브관광타운 및 이와 연계한 종합휴양시설이 구비된 실버타운을 만들 방침이다. 대한매일, 2000.4.7.

단장비가 설치되며 허브 재배단지에는 약용 허브와 고소득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건강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부를 중심으로한 헬씨어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고 김해시 인근 임야를 이용한 산업·관상용 허브벨트와 건강증진을 위한 휴양림 및 관상림 조성을 통한 미래형 허브관광산업, 허브벨트와 휴양림을 연계한 관광호텔을 포함한 휴양, 치료 및 장기요양 아로마 치료 단지 조성 등이 바람직하다.¹¹⁾

화훼, 단감, 차 등의 특수벤처농업작물의 건강식품제조·개발화 및 이를 이용한 세계적인 축제화와 부산·경남지역의 물류센터와 광역적 수출농산물 유통시설의 물류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 벤처기업의 육성

최근 IMF위기 이후 대기업의 부도, 빅딜 등으로 하청구조에 의존한 경남지역의 사업기반이 타지역보다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에 크게 종속되어 있는 김해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단순한 하청구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통한 기술전문화와 연구개발능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벤처기업의 육성은 벤처기업 그 자체의 성공적 의미보다는 기존의 김해지역 기계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부진한 김해지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 육성도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최근 인간의 DNA를 바꾸려는 노력처럼 21세기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의 DNA를 바꾸려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일고 있다. 김해시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입지적 우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경제 건설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고 앞으로 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 전략산업의 육성방안과 함께 세부 정책적 건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략적 육성방안

- 1) 김해시 중소기업체의 50%에 가까운 기존의 기계·자동차·금속산업을 새로운 지

11) 김용호, 전계논문, p. 32.

식집약형 기계산업(지식과 정보투자·부품생산형 고부가산업·중소기업중심 협력구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2)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화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김해시의 화훼·원에 기술적 노하우 인프라와 최첨단 의생명공학 연구개발 산업 기술을 연구하여 미래형 생물·건강소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4)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 역사유적의 관광화와 허브벨트를 조성한 휴양림 및 관광림의 조성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5)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벤처기업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로서는 기존의 기계·장비 산업의 기술개발과 부가가치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부진한 김해지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산업에 대한 장기적육성도 바람직 할 것이다.

2. 정책적 건의

- 1) 김해지역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김해시에는 10여개의 외국인투자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면 해외로 진출한 김해지역기업체수는 30여개에 달한다. 진출한 업종도 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김해지역만으로 따지면 장기적으로 김해지역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기술이전과 함께 투자 1억달러당 약 973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도시의 외국인투자유치노력¹²⁾을 비교해 볼 때 외국인투자지역 설치조례 이용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업체에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소기업중심의 異業種交流會를 활성화한다.

대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중심의 기술개발과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의 이업종교류회를 통한 기술개발, 정보교환, 공동구매 등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사업상 경쟁상대가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이종업종간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누리기 위해 그룹을 결성하고 각사의 경영정보, 기술자원을 상호교류함으로써 회원사의 애로부문을 보완·해결하고 회원공동의 연구, 개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그룹활동과정을 통하여 경영자의 정보력이 확충되며 다른

12)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을 지정하고 공현도에 따른 성과급을 지도하며, 대구시의 경우 첨단외국인기업의 경우 공장부지를 분양가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며 사천진사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공장부지 50년간 무상제공 및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분야간의 융합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체의 수평적 활동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화훼산업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농산물 사이버마켓 설치

김해시 화훼농가의 수출경쟁력은 신제품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1999년 외국 육종 회사의 지적소유권 문제제기로 인한 로열티지급, 유가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김해시의 수출장려금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수출동기는 유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가격경쟁력 약화에 순응하기보다는 유류대신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능동적인 가격경쟁력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화훼, 단감, 오이, 채소류, 육류 등의 농산물에 대한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을 만들어 직접적인 해외바이어의 개발, 해외 농산물의 정보입수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김해시 고유브랜드 개발

김해시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브랜드사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부산의 테즈락 (TEZROC)¹³⁾, 대구의 쉬메릭(CHIMERIC)¹⁴⁾ 등과 같이 김해시에서도 현재 김해시가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 해동이¹⁵⁾ 또는 별도의 브랜드를 개발해 볼 만하다. 먼저 농산물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13) 테즈락은 부산의 「태종대의 바위」(TEZ + ROCK)을 상징하며 TEZ는 그리스어로 기술을 의미한다.

14) 쉬메릭은 프랑스어로 '인류의 꿈- 환상'을 의미한다.

15) 김해의 영광 찬란했던 가락국 당시의 해맑은 소년의 순진함을 묘사하며 거북 등을 첨가한 이미지로서 김해시만의 특색있는 거북소년의 모습을 상징함.

참고문헌

- 강한균·최두수·김남두(1997), “김해지역 화훼류의 대일수출 확대방안,” 제1회 김해발전연구소 연구세미나, 1996.11.27.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제2권제1호, 6.
- 경상남도(1999), 「도정백서」.
- 김용호(1999), “김해 생물·건강소재산업의 세부추진계획,” 김해시전략산업기획단, 11.
- 김해시(1997), 「통계연감」.
- 김해시(1998), 「통계연감」.
- 김해시(1999), 「통계연감」.
- 김해시(1998), 「시정백서」.
- 김해시(1999),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 김해시(1999),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김해시(2000), 「2000년도 시정설명회」, 1.
- 민말순(1999), “김해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제15호 김해포럼.
- 박재룡외 2인(1999), 「IMF시대의 지방첨단산업단지개발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1999),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연구-경남 기계테크노벨트 프로젝트-」.
- 산업연구원(1999), 「지역산업진흥대책」, KIET정책토론회 자료.
- 서용위·원종하(1998), “김해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연구소.
- 안병규(1999), “기계산업의 지식집약화 전략,” 산업자원부·경상남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과 발전방안 토론회.
- 염태동(1999), “수출중심의 기계산업 구조개편 방안,” 산업자원부·경상남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과 발전방안 토론회.
- 이상일(1995), “김해시의 산업현황과 발전방향,” 「21세기를 향한 김해시 발전방향 심포지움」, 김해상공회의소.
- 이우배(1999), “김해지역 벤처산업 육성방안,” 제15회 김해포럼.
- 이현우(1999), “기계산업과 경남경제,” 산업자원부·경상남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과 발전방안 토론회.
- 임정덕(1999), “부산의 발전계획이 김해에 미치는 영향과 김해시의 대응방향,” 김해발전심포지움.
- 홍기두(1999),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산업의 발전방향,” 산업자원부·경상남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과 발전방안 토론회.